

## 남성으로 문힌 열녀절부(烈女節婦)

- <방한림전>에서 유교 덕목을 통해 보는 여성성과 남성성의 충돌

정단비\*

### <차례>

1. 들어가는 말
2. 방관주의 여성성과 남성성
3. 유교사회 전통 덕목과 방관주의 삶
4. 나가는 말

### <국문초록>

본고는 <방한림전>의 저자가 여성으로 태어나 남성으로 살아간 주인공 방관주의 삶을 묘사하면서 충효, 지기, 삼강 등 유교 사회의 전통 덕목을 자주 언급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방한림전>은 작자미상의 고소설로 여성영웅소설의 장르적 특성을 보이거나, 주인공인 방관주가 평생 여성의 의복을 입지 않고 남성으로 살아가며, 현명한 여인을 부인으로 맞이하여 재능 있는 아들을 입양하고 순종적인 며느리를 얻어 유교 사회의 이상적인 가정을 이루어가는 일대기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는 특색이 있다. 생물학적 성별의 주어진 사회적 역할에 충실하지 않은 자의 삶에서 거듭 유교적 덕목을 강조하는 것은 모순적이어 보인다. 또한, 가부장제에 적응하려는 방관주의 태도 때문에 <방한림전>은 여성주의 소설로서 한계를 갖는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방한림전>이 유교 덕목에 억압받은 여성의 삶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 성소수자 입장에서 유교 덕목에 호소하여 자신의 선택을 인정받기 위한 시도라고 해석한다. <방한림전>의 저자는 당대 상식적인 일반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유모와 이에 대응하여 자신의 삶을 옹호하는 방관주 간의 거둬되는 언쟁을 통하여 주인공의 신체와 성정체성 간의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전통 사회의 주요 덕목인 충과 효를 실천하는 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심지어 이러한 불일

\* 서울대학교 철학과 강사

치를 통해 부부간의 대표적인 덕목인 부부유별을 이루었음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조선 시대 유학자들 중에는 부부유별을 성역할의 구분으로 이해하지 않고 부부간의 성윤리로 해석하는 이들이 꾸준히 있었다. 방관주는 여성의 신체를 고려하자면 성역할에 충실한 삶을 살지는 않았으나 부부간의 성윤리는 충실히 지킨 자였으며, 저자는 이를 거듭 강조한다. 죽기 직전 황제에게는 여성으로서는 정절을 지켰고 남성으로서서는 영웅으로 살았음을 인정받으며, 사후 옥황상제에게는 남성으로 살았던 전생의 문란함을 여성의 몸으로서 살면서 씻게 되었음을 확인받는다. 다시 말해 방관주가 남성의 정체성으로 여성의 몸에 살게 된 것은 첫째로는 옥황상제의 명이었으니 방관주 본인의 선택이 아니었고, 둘째로는 지난 생의 부덕함을 씻어내는 방편이자 실질적인 덕이라고 주장한다. 저자는 여성의 신체를 갖고 있지만 남성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 기존 덕목들에 충실하며 유교 사회의 훌륭한 일원이 되려고 노력하는 방관주의 삶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성소수자의 삶을 받아들여줄 것을 간접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주제어** 여성영웅소설, 충, 효, 부부유별, 성역할, 성윤리

## 1. 들어가는 말

본 연구는 조선시대 고대소설인 <방한림전>의 주인공인 방관주가 여성의 신체와 남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저자는 방관주가 이런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충·효 등 유교 사회의 전통 덕목을 추구할 수 있었으며, 그 중 부부유별을 완성하는 데에는 신체와 정체성의 불일치에서 오는 갈등이 오히려 더 도움을 주었음을 주장하고 있음을 보이려고 한다. 이 작품은 생물학적 여성이면서도 가부장제에 적응하고 싶어 하는 주인공을 내세우므로 여성주의 소설로서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지만, 전통 사회 내에서 여성의 성을 갖고 태어난 사람의 일반적이지 않은 선택이 유교 덕목들을 통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데에서 의미를

갖는다.

〈방한림전〉은 작자미상의 소설로, 창작 연대는 19세기 경으로 추정된다. 평생 남성의 의복을 하고 남성의 삶을 살아가며 구국의 영웅이 되는 방관주라는 생물학적 여성의 일대기를 그린 것이다. 〈방한림전〉의 줄거리상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방관주는 어려서부터 여성으로서의 의복을 거부하며, 부모는 이를 받아들여 가까운 친척들에게도 방관주를 남성이라고 알린다. 2. 부모가 돌아가신 후, 유모가 여성의 삶을 살아가라고 거듭 권고하지만 거부한다. 3. 방관주는 어린 나이에 장원급제 후, 북방 오랑캐를 징벌하기도 하고, 우수상의 자리까지 오른다. 4. 그의 사정을 알아본 영혜빙을 만나 혼인하고 지기가 되기로 맹세한다. 5. 낙성을 주위 입양하여 친자처럼 키운다. 낙성은 많은 자식을 낳아 모두 입신양명한다. 6. 죽기 전에 천자에게 모든 것을 밝히며, 남성으로 장례를 치른다. 7. 도사, 꿈에 나타난 낙성 등의 입을 빌어, 부부는 전생에도 부부였으며 금슬이 지나치게 좋아 벌을 받았던 것임을 밝힌다.

남장여성을 주인공으로 하는 기존 여성영웅 서사와 입신양명의 기본 틀은 유사하지만, 특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남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장 그 자체가 목적이며, 그러므로 일시적인 남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도 여성의 의복을 입었던 적이 없다는 차이가 있다. 또한 4,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동성혼의 요소가 그저 긴장 고조를 위한 장치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사의 중심이 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여성영웅소설과 다른 모습을 보인다.<sup>1)</sup> 남성중심의 사회를 살아가는 여성의 설움을 묘사하거나 전장에

1) 광보미는 〈방한림전〉과 〈이대봉전〉, 〈정비전〉, 〈금환기봉〉, 〈정수정전〉, 〈홍계월전〉 등 주인공이 남장을 하는 다섯 편을 비교 분석하는데, 이에 따르면〈방한림전〉은 여성영웅소설의 일반적인 장르관습을 따라가면서도 조력자, 무예수련, 부마간택, 환복, 성혼, 일부다처의 요소가 없다는 점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인다. 광보미는 이러한 차이는 〈방한림전〉의 작가가 기존 관습들에 의문을 갖고 문제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의도적인 변형으로, 이 작품에 여성주의 시각을 더하는 것으로 이해하며, 방관주의

서 영웅으로서 적을 무찌르는 업적의 묘사보다는 남성으로서 누리는 가정 생활과 이를 통해 이루는 유교적 덕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방한립전〉의 기존 연구 대부분은 이 작품의 여성주의적 의의, 그리고 동성혼 요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방한립전〉을 여성주의 소설로 읽는 견해들도 있지만, 방관주가 영혜빙을 비롯한 주변 여성들을 대하는 태도의 가부장적 한계를 미루어 〈방한립전〉은 통속소설이며 적극적인 여성주의 소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sup>2)</sup> 오정미는 장르관습을 일부 답습하며 또 일부 극복하는 〈방한립전〉의 특성은 곧 통속성을 일부 유지하면서도 통속성을 넘어서는 여성주의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점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하기도 한다.<sup>3)</sup> 그러나 이러한 연구의 한계를 지적하며 방관주의 성정체성이나 성소수자로서의 삶 측면을 다룬 연구들도 적지 않다.

방관주의 성적 지향 및 성정체성 파악을 기준으로 기존 연구를 분류하자면, 첫째, 우선 방관주를 여성으로, 또 방관주와 영혜빙 사이의 사랑을 순전한 우정이나 계약 관계로만 보아 둘 간의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둘째, 방관주의 남성성은 인정하지 않은 채 둘 사이의 관계를 동성애로 정의하는 경우, 그리고 셋째, 방관주가 자신의 의지로 적극적으로 남성성을 추구한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분류에 속하는 연구자로는 조홍윤, 박길희, 김미령 등이 있다. 조홍윤은 방관주는 스스로 남성의 삶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부모의 은근한 욕망에 의해 남성으로서 정체성을 갖게 된 것으로 보아, 완전한 남성도 여성도 될 수 없는 상태에서 끊임없는 내적 갈등에 시달려야 했던 비극적인

젠더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지는 않고 있다. 광보미, 「여성영웅소설의 장르관습과 〈방한립전〉의 여성적 시각」, 『국문학연구』 46, 국문학회, 2022, 91쪽 참조.

2) 장시광, 「〈방한립전〉에 나타난 동성결혼의 의미」, 『국문학연구』 6, 국문학회, 2001, 275~276쪽 참조.

3) 오정미, 「〈방한립전〉의 남장의 성격과 의미 연구」, 『진지인문학』 12, 전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4, 133~155쪽.

모습이라고 여긴다.<sup>4)</sup> 박길희 또한 방관주는 부모의 영향으로 남성의 삶을 산 것이며, 영혜빙과의 결혼도 동성애보다는 실리를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한다.<sup>5)</sup> 김미령은 부모의 기대 때문에 남성으로 살던 방관주가 오히려 영혜빙과의 결혼을 통해 자신의 여성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지게 되었으며, 양성성을 포용한 이후에 오히려 더 큰 사회적 성공을 이루었다고 주장한다.<sup>6)</sup>

두 번째 분류에 속하는 연구자로는 김경미가 있는데, 〈방한림전〉을 ‘젠더 위반’으로 해석하고는 있지만 방한림을 남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대신 방관주와 영혜빙의 ‘동성혼’이 단순한 지기의 관계를 넘어선 동성애임을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sup>7)</sup>

세 번째로 방관주의 남성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자로는 곽보미, 서신혜, 오정미 등이 있다. 곽보미는 방관주는 남성의 삶과 동화되고, 영혜빙은 양성의 차이를 추구하는 등 상반된 태도를 보이는 두 여성 캐릭터가 서로 연대함으로써 가부장제에 함께 맞서는 것으로 이해한다.<sup>8)</sup> 방관주의 정체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가부장제의 문제를 답습하거나, 남성으로서 살아가는 “남성과 동화”된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서신혜는 방관주를 트랜스젠더 남성으로 바라보면서, 자신이 온전한 남성이 될 수 없음을 한탄하며 고통을 느끼는 개인의 아픔을 주로 다룬다.<sup>9)</sup> 이에 반해

4) 조홍윤, 「〈방한림전〉에 나타난 젠더 문제의 맥락 연구 - 남성만들기의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56, 한국고전연구학회, 2022, 163~194쪽.

5) 박길희, 「〈방한림전〉에 나타난 동성결혼과 지기 그리고 입양에 담긴 의미와 그 위험성」, 『배달말』 61, 배달말학회, 2017, 247~274쪽.

6) 김미령, 「〈방한림전〉에 나타나는 양성성과 가부장제」, 『문학과 융합』 41(5), 인문사회예술융합학회, 2019, 1368~1394쪽.

7) 김경미, 「젠더 위반에 대한 조선 사회의 새로운 상상 - 〈방한림전〉」, 『한국고전연구』 17, 한국고전연구학회, 2008, 189~216쪽.

8) 곽보미, 「여성영웅소설의 장르관습과 〈방한림전〉의 여성적 시각」, 『국문학연구』 46, 국문학회, 2022, 85~110쪽.

9) 서신혜, 「개인의 아픔으로 읽는 〈방한림전〉」,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0, 한국고전

오정미는 방관주가 이상적인 남성상으로 제시되고 있고, 철저히 남성 캐릭터가 배제된 구조 속에서 방관주를 통해 주체적 여성 입장에서 이상적인 군신·고부·남녀·부모 관계를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sup>10)</sup>

본 연구에서는 괘보미, 서신혜, 오정미의 해석을 받아들여 방한림의 정체성을 남성으로 정의하되, 신체와 정체성 간의 불일치를 겪는 방관주가 유교 사회의 덕목에 최대한 잘 적응하는 모습을 통해 성소수자의 삶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오정미는 방관주가 주체적인 여성의 입장에서 이상적인 남성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본고에서는 전통 유교 덕목의 기준에서 이상적인 남성에 더욱 가깝다는 점을 보이려고 한다.<sup>11)</sup> 대신 가부장제에 동화되고자 하는 방관주의 모습은 서신혜가 주장하듯 방관주 개인의 고통이라는 측면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방관주의 가부장적인 성향 및 유교덕목의 추구는 방관주의 삶을 억압하는 요소가 아니라, 당대의 도덕 기준에 의거해 방관주의 삶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하는 저자의 의도적인 장치로 기능한다. 저자는 부모와의 관계인 효, 천자와의 관계인 충, 부인 영혜빙과의 관계인 부부유별 등 여러 덕목을 통해 보았을 때 방관주는 이상적인 남성의 삶을 살았으며, 아이러니하게도 여성의 몸을 가진 남성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요구되는 유교 덕목들을 더 잘 이룰 수 있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방한림전〉의 이본으로는 〈낙성전〉, 〈쌍완기봉〉 등의 세 가지 한글필사본이 있으나,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sup>12)</sup> 본고는 장시광의 현대역 〈방한림전〉을 기본 텍스트로 삼되, 수록된 원문 및 이상구의 현대역을 참조하였다.

여성문학회, 2010, 275~300쪽.

10) 오정미(2014), 앞의 논문, 149쪽.

11) 오정미(2014), 위의 논문, 150쪽.

12) 장시광(2001), 앞의 논문, 258~264쪽 참조.

## 2. 방관주의 여성성과 남성성

미국 심리학회(APA)는 트랜스젠더를 “성정체성, 성 표현과 행위가 출생 시 지정된 성에 일반적으로 결부되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포괄적 용어”로 정의한다.<sup>13)</sup> 짧게 말하자면, 트랜스젠더는 생물학적인 성과 정체성 및 행동에서 드러나는 성의 불일치를 보이는 인물이다.

〈방한립전〉의 저자는 여성의 신체를 가졌지만 동시에 남성의 영혼을 품고 있는 방관주의 모습을 작품 전체를 통해 여러 면모로, 또한 현실적으로 어필한다. 방관주는 사회화되기 이전 어려서부터 여성의 의복이나 교육을 거부했고, 자기 자신을 남성으로 여겨 남성으로 칭하며, 영혜빙과 결혼하고 관직에 나아가는 것을 소원을 다 이루었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다른 모든 상황이 잘 풀렸을 때에도 자신이 신체적 남성이 아닌 것을 슬퍼하기도 한다. 소설의 말미에는 방관주로 태어나기 이전에도 또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도 남성의 영혼이었음이 밝혀진다. 어쩔 수 없이 여성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그의 내면에 대한 묘사는 모두 그가 남성임을 가리킨다. 실제로 방관주의 삶은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여성의 삶을 살거나 여성의 옷을 입은 적이 없이 남성으로 살고 싶어했고 또한 그렇게 살았으며, 남성보다 뛰어난 남성 영역의 재능을 보였고 이에 대해 큰 자부심을 느꼈으며, 죽을 때에도 천자의 인정을 받아 남성으로 묻혔다. 여성의 삶을 살 수 없다고 선언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대장부(大丈夫)”라고 칭하기도 한다.<sup>14)</sup> 또한 태어나기 이전에도 남성이었고 그 같은 영혼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며, 후생에도 그대로 남성의 영혼을 갖고

13) Umbrella term for persons whose gender identity, gender expression or behavior does not conform to that typically associated with the sex to which they were assigned at birth.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23, March 9, [www.apa.org](http://www.apa.org), <https://www.apa.org/topics/lgbtq/transgender-people-gender-identity-gender-expression>

14) 장시광 교역(2006), 앞의 책, 38쪽, 원문 26면 참조.

있다. 소설의 이런 여러 가지 면모를 감안했을 때, 방관주의 성정체성은 남성으로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sup>15)</sup>

그러나 방관주는 단순한 남성인 것은 아니다. <방한림전>에서 방관주의 성정체성과 신체의 성 사이의 불일치는 단순 갈등 고조나 재미 부여 이상의 역할을 하는, 이야기의 중심적 요소다. 우선, 외모 면에서 방관주는 단순히 남성적인 것이 아니라, 여성성의 스펙트럼 내에서 남성성도 보이는 인물이다. 방관주에 대한 묘사는 옥과 해 등 남성의 아름다움을 칭송하는 비유와 꽃과 달 등 여성의 아름다움을 칭송하는 비유를 아우른다. 방관주는 흰칠하고 풍채가 늙름하다고 묘사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복사꽃 같은 피부나 고운 손을 언급하기도 한다. 그러나 영혜빙처럼 허리가 가늘고 나긋나긋한 분위기가 있는 것은 아니다. 대신 방관주는 수염이 나지 않고, 가끔 환관 같다는 말도 듣기도 한다. 아직 십 대일 때 관직에 나서 평생 남장을 한 생물학적 여성에 대한 현실적인 묘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방관주의 재능은 남성의 영역에서 빛을 발하지만, 여성의 신체로 극복할 수 없는 경지의 능력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방관주는 바느질을 하고 천을 짜는 등 전통적으로 여성의 영역이었던 분야는 애초에 익히려고 하지 않는 대신 문학적인 재능이 뛰어나 일필휘지로 글을 지으며 시도 잘 쓴다. 방관주와도 같이 풍요로운 집안에서 좋은 교육을 받은 여성으로서 보일 수 있는 재능이다. 또한 방관주는 진을 그리고 병서를 읽는 것으로

15) 일부 연구자들은 방관주의 남장을 아들을 낳고 싶은 부모의 욕망이 투사된 것이므로 방관주의 성정체성이 반영된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김미령, 박길희 등은 방관주는 어려서부터 길쌈을 거부하고 남아의 옷을 입고 싶어 했는데, 이에 대해 부모의 입장에서 서술되었으며, 아들을 낳고 싶었던 부모의 욕망에 방관주의 의지를 투영했을 뿐이라고 이해한다. 그러나 저자의 입장에서 방관주의 부모의 입장을 거것으로 미화하여 묘사할 필요는 없다. 오정미는 오히려 소탈한 성품으로 인해 남복을 택했다는 묘사는 오히려 사회의 남성 중심 성향을 의식하기 이전에 남장을 선택했다는 근거로 해석하고 있다. 김미령(2019), 앞의 논문, 1374쪽; 박길희(2017), 앞의 논문, 253쪽; 오정미(2014), 앞의 논문, 142쪽 참조.

문자를 통해 무예도 익히지만, 활을 쏘거나 칼을 다루는 능력은 없다는 점이 거듭 강조되기도 한다. 군사의 이론을 익히는 일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남성들보다 능력이 훨씬 뛰어나지만, 일부 여성영웅 소설에서처럼 또래 남성들보다 힘이 세서 어느 누구도 맞서 싸울 수 없었다거나, 한밤중에 찾아온 자객을 눈에 보이지도 않는 칼부림으로 한 방에 제압했다거나 하는 무예의 경지를 보이지는 않는다.<sup>16)</sup> 방관주는 전장으로 가서 큰 업적을 남기고 나라를 구하기도 하지만 이는 첫째로는 뛰어난 충성심과 청렴함에 의거한 것이었고, 두 번째로는 진을 그리는 능력, 세 번째로는 적군의 여성 장수를 활로 쏘아 떨어뜨린 일로 의한 것이었다. 이는 모두 전통적으로는 남성의 영역에 속하지만 현실적으로 여성의 신체로써 해낼 수 있는 일들이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신체와 이에 따른 성정체성과의 불일치는 옥황상제가 방관주에게 명령한 것으로, 한 편으로는 현생에서의 괴로움을 일으키는 부정적인 것이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지난 생의 죄를 씻어내고 속죄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방관주에게 여성의 신체가 없었다면 남성과의 결혼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영혜빙과 맺어질 수도 없었으며, 영혜빙과 서로 원하면서도 거리를 유지해야만 하는 옥황상제의 벌의 내용이 실현될 수도 없었으며, 그러므로 과거를 속죄하고 천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도 없게 된다. 이는 방관주가 여성의 신체를 받아들여 여성의 정체성으로 살아간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불일치로 인한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방관주는 죄를 씻고 원래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방관주에게 생물학적 성과 정체성의 성 사이에 불일치가 있다는 것은 〈방한립전〉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보수적인 유교 사회에서 남성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덕목들을 감안했을 때 더욱 복합적인 의미를

16) 〈이형경전〉에서 이형경은 남성보다 힘이 세고 무술이 뛰어나 십여 함만에 주왕의 목을 베기도 하는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이상구 역, 『이형경전』, 문학동네, 2025, 40쪽.

가지며, 아이러니하게도 불일치가 있기 때문에 더욱 이상적인 남성이 될 수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우선 저자가 방관주의 삶을 묘사하면서 방관주가 어떻게 유교사회의 덕목들을 실천하는지를 거듭 강조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도록 하자.

### 3. 유교사회 전통 덕목과 방관주의 삶

#### 1) 총과 효

이 작품에서 전통 유교사회의 상식을 대변하는 인물은 방관주의 유모다. 유모는 방관주에게 여성으로 살아가기를 거듭 호소한다. 방관주와 유모 사이의 논쟁은 세 번에 걸쳐 반복되는데, 첫째로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직후 방관주가 아홉 살이 되었을 때, 두 번째로는 방관주가 영혜빙과 결혼할 것을 선언했을 때, 그리고 마지막은 방관주의 양아들 낙성의 짝이 정해졌을 때다. 첫 번째 대화에서 유모 주유량은 “니중을 어지럽게 하지 마셔서 돌아가신 부모님 영혼을 평안하게 하소서.”라고 부탁하고, 방관주는 감정적으로 화를 내며 자신이 남장은 사실은 오히려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음을 호소한다.<sup>17)</sup> 방관주는 남장은 첫째로는 부모의 명을 받든 것이고 둘째로는 입신양명하고 후사를 빛낼 수 있는 도구가 된다고 대꾸한다.

일부 연구가들은 이 대목을 근거로 방관주는 남성으로 살고 싶지 않았으나 부모에게 효도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남장을 한 것이라고 이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남장을 하는 것은 부모의 영혼을 편히 쉬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유모의 공격에 대해 자신의 선택이 효도에 어긋나지 않음을 정당화하는 말에 가깝다. 방관주는 부모에 대해 효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17) 장시광 교역(2006), 앞의 책, 16쪽.

기 전인 유아기부터 여성의 의복을 거부한 바가 있으며, 오히려 부모를 설득하는 입장이었다.

두 번째에는 유모가 마땅히 남성과 결혼해야할 텐데 여성과 혼인을 하겠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며 정체가 알려졌을 때를 걱정한다.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되면 적어도 혼인의 대상자만은 방관주의 생물학적 성별을 알게 되고, 그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방관주는 대책이 마련되어 있다며 다시금 유모의 입단속을 시킨다. 방관주의 입장에서는 생물학적 성이 알려져서 혼란이 일어날 것을 걱정하느라 원하는 바를 행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그런 일이 알려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선언인 셈이다. 그러나 이 시점에는 그의 대책이 무엇인지는 밝혀지지 않는다.

세 번째는 이미 영혜빙과 혼인을 하여 십 수 년을 행복하게 산 이후의 일로, 방관주의 생일잔치를 화려하게 치르고 양아들 낙성의 혼사가 정해진 날이다. 방관주 삶에서 가장 행복한 날 중 하나였을 이 시점에 주유량은 “초목금수도 음양이 서로 어울리는 것이 떳떳하거늘, 상공과 부인은 스무 살이 넘었음에도 자연의 섭리와 인륜을 저버리고”있다고 지적한다.<sup>18)</sup> 이때 주유량이 제안하는 것은 훌륭한 군자를 공동의 남편으로 얻어 일부다처 형태의 가정을 이루고 시는 것이다. 광보미의 분석에 따르면 이것이 동성혼 요소가 들어있는 기타 여성영웅소설의 결말이니, 주유량의 제안이 곧 당대의 일반적인 상식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sup>19)</sup>

조선시대의 일반적인 독자라면 이 소설을 읽으며 주유량의 입장에 공감하고, 같은 당혹감을 느꼈을 것이다. 현대의 한국인이자라도 마찬가지다. 트랜스젠더로 살아가며 생물학적 동성과 결혼을 생각하는 친구가 있다고 해보자. 일반적이라면 첫째로는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다음으로는 결혼 상대자는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묻고, 다음으로는 아무리 그

18) 장시광 교역(2006), 위의 책, 49쪽.

19) 광보미(2022), 앞의 논문, 100~102쪽.

렇다고 하더라도 생물학적 동성 간의 부부생활까지 생각한다면 자연의 섭리와 인륜에 어긋난다는 의심을 품고 망측하게 여길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소설의 전개에 따라 주유량으로 대변되는 일반 독자의 의문에 하나씩 답을 해나가고 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유모와 방관주 사이에 벌어지는 이 세 번의 언쟁과 그 후에 벌어지는 일은 실제로는 저자가 방관주의 삶을 통해 독자를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로는 방관주가 충효의 덕목을 착실하게 실천하며 입신양명하고 후사를 얻는 모습을,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영혜빙의 이해를 얻어 지기(知己)라는 덕목을 이루는 것을 통해 주변의 다른 인물들에게도 훌륭한 부부관계를 인정받으며, 사회에 물의를 빚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 방관주의 현생에서 삶에만 초점을 맞추었을 때 끝내 해결되지 않는 것은 인륜을 어겼다는 비판인데, 이는 결말 부분에 옥황상제의 등장 및 천강연 화소를 통해 방관주와 영혜빙 간의 진정한 부부유별(夫婦有別)의 의미가 밝혀지면서 해소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유모가 지적하는 방관주의 모든 문제들은 방관주의 행실과 덕목을 통해 해결하거나 정당화할 수 있음을 한 단계씩 증명해나가는 것이다.

먼저 방관주가 자신의 삶을 통해 어떻게 충과 효라는 유교 덕목을 통해 자신의 남장을 정당화하는지 살펴보자. 유교 사회에서 효와 이의 표현은 삶에서 핵심적인 가치였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큰 업적을 남기고 지적 능력이 뛰어난 인물이라도 기본적인 효를 갖추지 못한 자라면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다. 이와는 상반되게, 다른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을 위해서, 효심이 동기가 되어 벌인 일이라면 용서받을 수 있기도 했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같은 여성영웅소설의 주인공인 목란(木蘭)이라고 할 수 있다. 목란 또한 아버지에 대한 효성 때문에 남장을 하고 전쟁에 참여한다.

방관주의 효성은 작품을 통해 매우 여러 번 강조된다. 효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답변이 있을 수 있겠으나, 유교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공자의 말을 빌어 방관주의 삶을 해석해보도록 하자. 공자는 효는 색난(色難)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부모에게 항상 부드러운 낯빛으로 대하라는 말이다.<sup>20)</sup> 그런데 방관주는 남성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한 일이 없다. 오히려 부모는 그렇듯 재주 많은 그가 여성으로 살아가면서 재능을 씩히게 될 것을 안타까워했다. 부모는 오히려 남성으로서 방관주의 삶을 가장 지지해 주었던 이들이었다.

또한 방관주는 진심으로 부모를 사랑하며 그리워하고 끊임없이 애도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 또한 공자가 말한 효의 중요한 부분이다. 공자는 3년상을 치러야 하는 이유를 말하면서는 상을 치를 때에는 맛있는 음식도 입에 달지 않고 좋은 음악도 즐겁지 않을 정도로 진심으로 슬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sup>21)</sup>

방관주는 이러한 공자의 가르침을 평생에 걸쳐 그대로 실천한다.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면서는 “몸이 상할 정도”로 슬퍼했지만 법도에 맞게 삼년상을 잘 치러 주변을 감동시킨다.<sup>22)</sup> 삼년상이 끝난 이후에도 평생에 걸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부모를 떠올리며 슬퍼하는 모습을 보인다. 삼년상이 끝날 때, 1년 동안 유량을 하고 돌아올 때, 장원급제를 한 이후, 천자에게서 높은 지위를 받았을 때 등 삶의 주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방관주는 부모를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리거나 서러워한다.<sup>23)</sup>

20) 『論語』 「爲政」 子夏問孝。子曰：「色難。有事弟子服其勞，有酒食先生饌，曾是以爲孝乎？」

21) 『論語』 「陽貨」 宰我問：「三年之喪，期已久矣。君子三年不爲禮，禮必壞；三年不爲樂，樂必崩。舊穀既沒，新穀既升，鑽燧改火，期可已矣。」子曰：「食夫稻，衣夫錦，於女安乎？」曰：「安。」「女安則爲之！夫君子之居喪，食旨不甘，聞樂不樂，居處不安，故不爲也。今女安，則爲之！」宰我出。子曰：「子之不仁也！子生三年，然後免於父母之懷。夫三年之喪，天下之通喪也。子也，有三年之愛於其父母乎？」

22) 장시광 교역(2006), 앞의 책, 17쪽.

23) 장시광 교역(2006), 앞의 책, 18, 19, 24, 63쪽.

물론 8세에 부모를 여의고,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주는 이가 거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방관주가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해 준 부모님을 시시때때로 그리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저자가 이 사실을 상황마다 삽입하여 독자에게 밝히는 것은 방관주가 얼마나 효성스러운 사람이었는지를 독자에게 지속적으로 환기시키기 위함이다. 방관주는 생물학적 성을 어기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통 사회 내의 덕목으로는 트집을 잡을 수 없는 인물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듯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는 부모에 대한 깊은 사랑 외에도, 방관주가 유모에게 약속한 효의 요소는 입신양명이다. 방관주는 12세에 장원급제를 하고, 그 후로는 곧 안찰사가 되었다가, 형주 땅을 잘 다스린 공을 인정받아 병부상서가 되고, 몇 해가 지나자 대도독이 되어 원수로 북방 오랑캐를 친다. 그리고 결국 큰 승리를 거두어 우승상이 되며, 부모도 이를 통해 추존한 작위를 받게 된다.<sup>24)</sup> 나라를 구하고 천자의 사랑을 받아 부모까지 작위를 얻었으니 애초에 약속한 입신양명을 훌륭하게 이룬 것이다. 또한 방관주는 현명한 여성을 부인으로 맞이하여 자신이 집을 비웠을 때에도 제사를 챙길 수 있도록 하고, 낙성이라는 뛰어난 아이를 양자로 맞아 대를 잇게 한다. 조선시대에도 아이를 입양하여 제사를 잇게 하는 일은 왕가에서도 종종 있는 일이었으며, 유전적인 형질을 보존하는 것보다는 이름과 제사를 이어가는 것을 훨씬 중요한 것으로 여겼다.<sup>25)</sup> 또한 낙성은 두 명의 부인을 맞아 열 명이 넘는 아이를 낳았고 다들 뛰어난 인물로 성장했으나, 제사를 잇고 부모의 이름을 높이고 가문의 영광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방관주는 탁할

24) 장시광 교역(2006), 앞의 책, 62쪽.

25) 『맹자』 「이루상」에서 “맹자왈: 불효에는 세 가지가 있으니 그 중 후대가 없는 것이 가장 크다(孟子曰: 不孝有三, 無後爲大)”라고 하는데 이 때의 “무후(無後)”는 단 순히 자식이 없다가보다는 제사를 이어갈 사람이 없는 것을 말한다. 趙岐는 “무후(無後)”를 “결혼하지 않고 자식이 없어서 선조의 제사를 끊어지게 하는 것(不娶無子 絕先祖祀)”으로 해석한다.

곳이 없는 효도를 한 셈이다.

방관주는 유모가 추궁하는 것처럼 여성의 몸으로 남성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것으로 불효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효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비록 효를 이루기 위하여 남장을 한 것은 아닐지라도, 남장을 하지 않았더라면 할 수 없었던 크나큰 효도를 해냈다.<sup>26)</sup>

방관주가 나라에 큰 공을 세운 것은 부모에 대한 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군주에 대한 충성의 요소이기도 하다. 방관주는 간신들이 천자를 쥐고 흔들고 환관들이 국정에 개입하자 자주 상소하며 충심을 보인다. 천자가 그의 간언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도 나라에 오랑캐가 쳐들어오자 오로지 방관주만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전쟁에 참여한다. 자객이 숨어드는 것을 알아채고, 오랑캐의 여자 장수를 활을 쏘아 떨어뜨리고, 또 진을 쓰는 기술도 훨씬 앞서서, 직접 신체를 맞대고 싸우거나 근력을 보이지 않고도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 충심과 지략, 활 쏘는 기술로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것이니 선비의 도에서 벗어나지 않고도 무관의 업적까지 이루게 되었다.

방관주는 분명 큰 공을 남겼기 때문에 국가에 충성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군주를 지속적으로 속였다는 불충을 저질렀다. 그러므로 방관주는 죽음 직전에 천자에게 자신의 생물학적 성별을 밝히며 죽을 죄를 지었다고 고백한다. 그러나 천자는 이 사실에 분노하는 대신 오히려

26) 방관주가 부모에게 효도하기 위한 의도로 남장을 하였다는 주장의 근거로 사용되는 다음 문장에 대해, 방관주의 부모가 아들이 태어나지 않은 것을 애달파했다(장시광)/ 안타까워하였다(이상구)는 조선시대에 여성으로 태어난 딸의 인생을 불쌍하고 안타깝게 여긴 것이지 아들이 없는 본인들의 삶을 한탄한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또한 작자는 방관주의 영특함을 보고 “부모가 매우 사랑하여 아들이 없는 것을 한으로 여기지 않았다(16번).”라고도 저술하고 있는데, 이는 아들이 아니지만 기이할 정도로 재능이 넘치는 방관주의 모습을 “더할 나위 없이 기뻐했다”거나 “딸의 재주와 외모가 보통 사람이 아니었으므로”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두었다는 서술들과 연결해서 보았을 때, 부모가 불쌍하게 여기고 안타까워했던 것은 자식의 생물학적인 성별보다는 이 정도의 재능을 가진 아이가 사회의 편견 때문에 규방에서만 삶을 마감해야 하는 현실에 가까웠던 것으로 보인다.

여자의 몸으로도 이 모든 것을 이루어낸 방관주의 특출난 능력을 칭찬하며, 방관주를 이런 상황에 밀어넣은 자신의 안목이 부족했던 것을 탓한다.<sup>27)</sup>

천자가 자신이 현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물학적 성이 여성인 방관주의 “인륜을 온전히 못 했다”고 잘못을 자신에게 돌리는 것은 오히려 그가 여성임을 알게 되었더라도 그를 자리에서 내치거나 벌하려고 하기보다는 더 많은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을 것이라는 말로 들린다. 실제로 천자는 방관주의 벼슬을 빼앗지도 않고, 그의 행적을 죄가 아니라고 인정하며, 모든 장례의 절차를 남성으로서 치르도록 한다. 이는 그가 천자에게 남성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이며, 동시에 천자를 속였던 과거가 불충이 아니라는 승인을 받은 셈이다.

천자의 입장에서는 생물학적 성별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국가에 큰 공을 남기고 천자에게 도움을 준 이라면 그 방편은 정당화될 수도 있다. 방관주는 큰 충성을 이루기 위해 성별을 속이는 작은 불충을 저지른 셈인데, 천자는 이를 인지하고 나서도 이를 죄라고 여기지 않았고, 오히려 그를 남성으로 인정하였다. 천자의 승인 하에 남성으로서 장례 절차를 치를 수 있게 됐다는 것은 현대 제도 하에서 보자면 주민등록번호를 여성에서 남성으로 바꿔 받은 것보다도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방관주는 죽음과 함께 남성으로 정체성을 인정받았으며 이는 나라에 대한 그의 충성으로 인해 얻을 수 있었던 결과물이다.

## 2) 방관주와 영혜빙의 지기가 갖는 한계

여성의 신체로 남성의 정체성을 가진 방관주에게서 충이나 효보다도 더욱 복합적인 의미를 갖는 덕목은 부부간에 지켜야하는 인륜일 것이다. 낙성은 부모님의 모습에 대해 겉으로는 부부 관계라는 삼강을, 안으로는 지

27) 장시광 교역(2006), 앞의 책, 78쪽.

음을 이루었다고 평가한다.<sup>28)</sup> 그러나〈방한립전〉의 내용을 살펴보자면 10회 이상 언급되는 지기/지음이라는 덕목을 과연 방관주가 갖추었는지는 불확실해 보인다. 방관주가 영혜빙을 비롯한 다른 여성들의 가치 및 내면의 소망을 깊이 있게 알아주고,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려고 노력하는 장면은 등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부부의 관계를 지기로 미화하는 것은 여러 학자들의 비판을 받아왔다.<sup>29)</sup>

영혜빙과의 혼사를 추진하는 시기로 돌아가보자. 유모는 방관주에게 생물학적 여성이라는 사실이 소문이 나면 뒷일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고 따져 묻는다. 막상 유모에게는 아무런 걱정을 하지 말라고 선언한 방관주도 영혜빙과의 첫날밤에는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할 정도로 긴장한다. 방관주의 비밀을 눈치 채고 적극적으로 그의 고백을 이끌어내는 것은 영혜빙이다. 영혜빙이 이렇듯 방관주와 결혼을 하기로 마음 먹은 것은 방관주가 여성의 신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그러므로 일반 남성과의 결혼과는 크게 차이가 있으리라고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방관주는 이렇듯 명백했던 영혜빙의 소망을 제대로 인지하거나 반영해주지는 못한 듯 보인다. 결혼 생활을 통해서 동등한 여성으로서의 모습보다는 남성인 가부장으로 대해줄 것을 오히려 강요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방관주는 영혜빙에게 지기의 역할을 다 하지 못했다.

영혜빙은 유모를 제외하고는 방관주의 신체적 성을 알고 있는 유일한 인물로, 작품을 통해 영혜빙과 방관주 사이에 말다툼 및 갈등은 세 번 등장한다. 첫째로는 여성의 삶을 살 것을 권고하는 유모에게 화를 내는 방관주를 “문백형”이라고 불렀다가 여성이 가장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고 싸운

28) 장시광 교역(2006), 위의 책, 76쪽.

29) 김하라는 “방관주가 자신의 성취를 중시하는 업적지향적 태도에서 영혜빙을 일종의 수단으로 여기며 이성에 체계 내의 부부관계를 피상적으로 지기라 표현”했다고 지적한다. 김하라, 「〈방한립전〉에 나타난 지기 관계 변모의 의미」, 『관악어문연구』 27,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22, 231쪽.

일, 둘째로는 방관주가 장군이 되었을 때 무술 실력이 있는 줄 몰랐다고 하여 방관주가 자신을 잘 모른다며 서운해한 일, 세 번째로는 방관주가 천자에게 받은 책과 서진을 영혜빙과는 나누지 않고 아들 낙성에게 준 것을 서운해하자 방관주는 여성에게는 필요 없기 때문이라고 대꾸하고 영혜빙은 그렇다면 방관주에게도 쓸모 없는 것이 아니겠냐고 반박을 한 일이다.

둘 사이가 좋을 때에도 방관주는 영혜빙에게 자신이 남성으로서 출세했기 때문에 부인이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며 생색을 내는데, 영혜빙이 그의 기분에 맞춰주며 남편 덕에 여성으로서 호강하고 있다고 대답을 한 때에도 방관주는 돌아서서 자신이 완전한 남성이 이념을 슬퍼한다. 이러한 일련의 갈등으로 미루어보았을 때, 방관주는 영혜빙이 자신을 온전한 남성으로 인정하고, 여성이 가장에게 보이는 존경의 태도를 모두 보이기를 요구하며, 가장 덕분에 호강하고 살고 있음을 거듭 강조하며 인사치레를 얻고 싶어 한다. 방관주의 이러한 태도는 영혜빙이 여성과의 혼인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에는 전혀 부합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영혜빙 또한 이를 거꾸로 이용해 방관주에게 상처를 주고 싶을 때에는 방관주의 남성성을 부정하거나 의심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로 미루어보았을 때 이 작품에서 지기는 영혜빙이 방관주의 신체적 성을 알면서도 그와 결혼하기로 결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영혜빙의 일방적이자 제한적인 덕목이다. 유모가 방관주에 대해 걱정하는, 어떻게 여성의 몸으로서 여성과의 결혼을 추구하려고 하는가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바로 영혜빙의 지기고, 영혜빙은 비록 자신이 원하는 동등한 결혼생활을 누리지 못하면서도 여전히 부부간의 의리를 지킨다.<sup>30)</sup> 그러나 방관주의

30) 박길희는 지기가 될 만한 숙녀를 얻어 결혼을 하는 것은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였을 것이라고 해석한다. 박길희, 「〈방한림전〉에 나타난 동성결혼과 지기 그리고 입양에 담긴 의미와 그 위험성」, 『배달말학회』 61, 배달말학회, 2017, 254쪽. 방관주 입장에서 영혜빙의 지기는 자신의 정체를 숨길 수 있는 방편으로 쓰였다고 이해한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무심함에 실망하고, 이로 인해 방관주의 야망과 괴로움을 다 이해하고 보듬어 주는 덕목까지는 가지 못한다. 이 둘 사이의 관계가 곧 서로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주는 지기며 이상적인 덕목이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여러 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방관주와 영혜빙의 부부관계에서 지기의 한계는 곧 이 작품의 여성주의적 성격의 한계라고도 볼 수 있다. 겉으로 드러낸 지기가 아닌, 다른 어떤 덕목이 이 부부 사이를 정의하는지를 살펴봄으로 이 작품에서 실제로 추구하는 바를 유추해볼 수 있을 것이다.

### 3) 방관주와 영혜빙의 부부유별 - 여러 해석 가능성과 시사하는 바

〈방한림전〉은 표면적으로는 방관주와 영혜빙의 지기를 내세우지만, 전통적인 유가의 부부 관계를 정의하는 덕목은 부부유별이 대표적이다. 오륜, 혹은 부부유별은 〈방한림전〉 내에서는 명시적으로 언급되는 일이 없으나, 분명 그 시대에 부부를 자처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켜야할 덕목이었다. 그렇다면 부부유별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과연 방관주와 영혜빙은 이를 지키고 살아갔다고 할 수 있을까?

영미권에서 활동하는 중국 학자들은 이 덕목이 남성과 여성이 각각의 맡은 역할이 있으며 성별 간에 본분이 다름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수 천, 수백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다. 유교 덕목을 새 시대에 맞게 재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Chenyang Li 조차도 남편과 부인의 관계는 평등하지만, 분별이 필요하다는 점은 유효하다고 설명한다.<sup>31)</sup> Li는 자신보다 더 보수적인 Jiang Qing를 예시로 들어, 2015년에도 좋은 딸, 좋은 아내, 좋은 어머니가 되는 것이 여성의 덕목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음을 언급한다.<sup>32)</sup>

만약에 방관주의 성별을 그의 생물학적인 성에만 국한하여 정의한다면,

31) Chenyang Li, *Reshaping Confucianism: A Progressive Inquir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23, 126쪽.

32) Li(2023), 위의 책, 123쪽.

또한 부부유별을 그저 성역할이라는 의미로 이해한다면, 방관주는 절대로 부부유별의 덕목을 지키고 산 자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방관주는 남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니고, 자신의 이러한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변 여성들에게 여성으로서의 전통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일관성 있게 요구한다. 그는 자신을 자(字)로 부르는 영혜빙을 꾸짖으며 가장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말라고 호통치기도 하고, 천자가 내린 선물들을 아들 낙성과는 나누되 부인과는 나누지 않으면서 부인은 여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대답하기도 한다. 방관주는 사회적 남성으로서 가정에서 가장의 역할을 유지하고, 자신과 부인 영혜빙의 역할을 확실하게 구분하고 있다.

〈방한립전〉에서는 부인인 영혜빙뿐 아니라, 아들의 짝인 며느리에게도 전통적인 여성상을 요구한다. 며느리인 김부인은 시집오는 날 부모에게 “군자를 공경스럽게 대하고 시부모를 지극한 효성으로 섬기”라거나, “부지런하고 온순하며 몸을 낮추어 남편을 예로 섬”기라는 조언을 듣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한다.<sup>33)</sup> 김부인에게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은 방관주 본인은 아니다. 그러나 저자가 방관주의 입장을 서술할 때와 소설의 다른 여성의 삶을 대하는 태도가 사뭇 다르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실제로 김부인은 아이를 열이나 낳고, 낙성이 둘째 부인을 들일 때에도 둘째 부인과 시기질투 없이 자매처럼 잘 지내 모두의 칭찬을 듣기도 한다. 또한 낙성과 그의 부인들에 대한 관계에는 지기/지움의 표현이 한 번도 쓰인 적이 없다. 결국 방관주는 자신은 생물학적 성별을 뛰어넘는 삶을 살았지만 영혜빙과 며느리에게는 충실한 여도를 요구하는 것으로 제사를 이어가고 후사를 이어가는 효의 덕목을 이루어낸다. 남성으로서 방관주의 성공은 주변 여성들이 역할에 충실했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것이다.

33) 장시광 교역(2006), 앞의 책, 65쪽.

부부유별의 덕목을 전통적인 성역할에 충실하다는 의미로 해석했을 때, 방관주는 자신이 선택한 사회적 성인 남성으로서 주변 여성들에게 성역할을 강요한 인간으로, 부부유별에 충실하되 위선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조선 성리학의 부부유별 덕목은 성역할의 구분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오히려 성역할의 구분으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견해라는 주장도 있다.<sup>34)</sup> <예기>에서 보는 부부유별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같은 집안 내에서의 성적 문란을 막는, 근친상간을 금지하는 내용에 가깝다.<sup>35)</sup> 친인척이 한 마을에 모여 사는 전통 사회에서 남녀의 문란을 막는 것은 현대사회와는 또 다른 기준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부부/남녀유별은 이성(異性)이라면 지리적으로 분리된 공간에 살아가며, 이성(異姓) 중 복잡한 절차를 통해서만 혼인을 맺을 수 있다는, 부부의 관계가 가능해지려면 절차적, 공간적인 거리와 존중이 필요하다는 윤리법규를 낳는다.

부부유별의 덕목은 아무리 부부 사이라고 하더라도 적절한 공간과 시간이 아닐 때 아무렇게나 문란한 관계를 맺는 것을 모두 부도덕한 일로 규정하고, 그러므로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공간을 사용해야 하며, 같은 공간에 있을 시에도 스스럼없이 신체적 접촉을 하면 안 된다. 여기에 남성은 사랑방을 사용하고 여성은 규방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은 성별에 따른 역할을 말하

34) 김승혜, 「월례 발표회: 공간관의 재조명: “부부유별”의 해석학적 역사와 현대적 전망」, 『한국공자학회』, 1998, 69쪽 참조. 김승혜는 유교문화에 남녀차별적인 요소가 있는 것을 직접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삼강과도 같은 불평등한 부부관계는 오히려 위서에서 파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유교 전통의 내재적인 가치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35) 우준호는 남녀유별과 부부유별의 분별을 같은 의미라고 전제하였을 때, 남녀유별의 의미를 기반으로 부부유별의 의미를 추론하는데, 그 과정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암것을 구분하지 않는 것은 짐승이라는 『예기』 「곡례상」의 기록에서 의미를 유추해 나간다. 우준호, 「부부유별의 의미에 대한 연구」, 『중국학연구』 73, 중국학연구회, 2015, 135쪽 참조.

는 것이 아니라 상호존중과 부부 사이 안에서의 성윤리를 의미한다.<sup>36)</sup>

부부유별의 세 번째 의미는 자신의 부인과 타인의 부인을 구분해야 한다는 간통 금지의 원칙이다. 간재는 부부유별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주장하며 공간/역할을 분리와 문란을 막는 성윤리적인 의미를 모두 강조하였다.<sup>37)</sup> 현원진 또한 〈한씨부훈〉에서 부부유별은 1) 불륜을 막고 2) 부부가 서로 함부로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밝혔고, 김종명은 이것이 중국과 한국의 풍습의 차이에서 온다고 부연하고 있다고도 한다.<sup>38)</sup> 다산은 아들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조금 더 명시적으로 남성들이 창기를 찾는 일을 막는 등 성적 문란을 금지하는 것이 부부유별의 의미임을 거듭 강조하며, 일반인들의 이 덕목에 대한 이해는 잘못되었다고 선언하기도 한다.<sup>39)</sup>

다시 말해, 조선 사회에서 부부유별은 여성은 여성의 역할, 남성은 남성의 역할이 있다는 주장을 넘어서서, 부부가 아닌 남녀 사이의 신체 관계에 대한 금욕, 그리고 심지어 부부 사이에서의 금욕까지도 포함하는 덕목이다. 부부간에도 정절과 금욕이 덕목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방한림전〉의 결말과도 일맥상통한다. 이를 감안하면 방관주와 영혜빙의 결합은 새로운, 더욱 복합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

36) 위에서 지적한 현대의 중국 유학자들이 별(別)의 의미로 남녀 각각의 성역할의 구별을 강조한 것에 비해, 김승혜는 1974년 출판된 차주환 교수의 〈맹자〉에서부터 부부유별을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다른 남녀와의) 분별이 있어야 하고 ...”로 번역했음을 밝힌다. 김승혜 외에도 이종목 또한 부부유별을 성역할보다 성윤리의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다. 김승혜, 위의 논문, 55쪽, 이종목, 「조선 선비의 부부 생활과 부부유별」, 『관악어문연구』 34,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09, 349~365쪽.

37) 이종목은 이덕홍이 부부유별을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나눈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종목(2009), 위의 논문, 352쪽 참조.

38) 이종목(2009), 위의 논문, 354쪽 참조.

39) 정약용, 민족문화추진회 편역, 『다산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와 교훈』, 서울: 문장, 2006, 117쪽.

생물학적 여성인 방관주는 자신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기방에 들락거리거나 다른 여성과 문란한 관계를 맺을 수 없었다. <방한립전> 또한 신체적인 여성으로서 방관주와 영혜빙이 죽기 전까지 정절을 지켰음을 거듭 강조한다. 방관주는 영혜빙과의 혼인에도 앵혈을 확인시키고, 죽기 직전 방관주는 황제에게, 영혜빙은 자신의 부모에게 앵혈을 보인다. 황제는 방관주를 남성으로 장례 치러주기로 약속하는 동시에 여성으로서 그의 정절을 칭찬하고 높이 사는 모습을 보인다. 다시 말해, 그 사회의 최고 권위자인 천자는 방관주의 사회적인 성인 남성과 신체적 성인 여성의 덕목 모두를 승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결정적으로 방관주는 영혜빙을 사랑하는 남성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부부관계 내에서도 문란해질 수 없었다. 다음은 전생애 방관주와 영혜빙이 지은 죄에 대한 묘사다.

“음양을 바꿔 임금과 온 천하를 속였으니 그 벌이 없지 않을 것이로다. 천궁에서 여색을 좋아해 멋대로 하였으므로 이승에서 금슬의 즐거움을 끊게 했으니 스스로 죄를 이는가?”<sup>40)</sup>

“우리는 본디 문곡성과 상아성이었는데 금슬이 너무 좋아 잠시도 떨어져 있지 않았다. 그래서 맡은 일은 하지 않으니 상제께서 편안치 않게 여기셨다. 태을이 속이려고 하여 상제께 아뢰고 문곡성은 방가에 내치고 상아성은 영가에 내치게 된 것이다. 문곡성은 본래 남자였으니 남자의 일을 한 것이다. 태을이 희롱하여 여자가 되게 한 것은 허명으로 부부 되어 하늘에서 너무 멋대로 한 것을 벌하려 했기 때문이다 ... 이에 모여 옛날과 같이 즐겁게 지내니 너희는 서러워 말고 부디 집안의 명예를 빛내고 만수무강하라.”<sup>41)</sup>

40) 장시광 교역(2006), 앞의 책, 73쪽.

41) 장시광 교역(2006), 위의 책, 85쪽.

첫 인용문은 부부의 생전에 찾아온 신묘한 도사가 남긴 말이며, 두 번째는 부부가 사망 이후 양아들 낙성과 며느리의 꿈에 찾아와 직접 남긴 말이다. 도사는 마치 방관주만이 전생의 죄로 벌을 받은 것처럼 이야기하였으나, 방관주 사후에는 부부가 함께 전생의 문란에 대한 벌을 받은 것으로 묘사된다. 이 둘은 모두 환상적인 요소로, 이를 근거로 곧 방관주와 영혜빙이 문곡성과 상아성의 환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저자가 천장연의 요소를 활용하여 작품을 읽는 이들에게 방관주의 독특한 삶에 대한 정당화를 시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부부의 전생에 대한 서술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방관주와 영혜빙의 현생에서의 삶은 별로써 주어진 것이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성소수자의 삶은 과거의 죄에 대한 벌이라는 말인가? 광보미는 〈방한림전〉에서 드러나는 적강-천정연의 화소를 “동성혼을 합리화함과 동시에, 방관주와 영혜빙의 삶이 단죄라는 의미를 갖게 한다”고 보며 이것이 “여성의 삶에 대한 작자의 인식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sup>42)</sup> 방관주와 영혜빙의 사랑이 천정연 화소를 통해 합리화되는 점은 분명하다. 그들의 사랑은 전생으로부터 이어져 온, 죽음을 넘어선 숭고한 것이며, 심지어 천상계에 속한 인간의 영역을 뛰어넘는 사랑이기도 하다. 그러나 방관주와 영혜빙이 받은 벌의 내용이 그들의 ‘여성의 삶’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첫째로, “여자는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영혜빙이며, 남편의 말에 복종해야 하는 여성의 삶에 대한 한탄이었다.<sup>43)</sup> 방관주는 남성의 지시에 복종해야 하는 삶을 살았던 적이 없다. 그의 괴로움은 그가 여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남성의 영혼을 가지고 있는데 신체가 여성이라는 불일치가 있었기 때문으로, 완전한 남성이 아님을 슬퍼한 것이다.<sup>44)</sup> 서신혜는 방관주

42) 광보미(2022), 앞의 논문, 97쪽.

43) 장시광 교역(2006), 앞의 책, 26쪽.

44) 장시광 교역(2006), 앞의 책, 37쪽, 오정미(2014), 앞의 논문, 144쪽 참조.

를 트랜스젠더로 읽고, 이 작품을 트랜스젠더인 방관주의 개인적인 이픔에 대한 것으로 이해한다. 방관주의 이픔은 자신의 처지에 대한 것이며, 가부장제에 대한 사회적 반항을 담은 것은 아니다. 방관주는 겉과 속이 다른 자신에 대해 우울해하고 평생에 걸쳐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이다.<sup>45)</sup>

트랜스젠더인 방관주의 삶에 괴로움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정체성의 불일치에 대한 괴로움이 곧 옥황상제가 내린 벌의 본질인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영혜빙도 같은 벌을 받았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의 죄는 그가 호색하여 영혜빙과 금슬을 지나치게 즐긴 부분이며, 그러므로 방관주와 영혜빙이 함께 받은 벌은 둘이 더 이상 마음껏 색을 즐기지 못하는 데에 있다.

예를 들어, 방관주와 영혜빙은 가장 행복한 순간에 “나 같은 훌륭한 남편을 만나 … 높은 지위에 오른 것을 하례”, “여자가 남편의 은총을 입는 것은 사리에 당연”등 방관주를 이상적인 남성으로 치부하는 인사를 주고 받으면서도 방관주가 바로 “남자로 태어나지 못한 것을 슬퍼”했다고 적고 있다.<sup>46)</sup> 맥락을 보았을 때 방관주는 이미 뛰어난 재능을 인정 받아 높은 지위를 누리고 있고, 또한 설렘을 느꼈던 대상인 매력적인 여성과 혼인도 하였다. 그러므로 여성으로서 높은 사회적 지위를 누리지 못하는 것을 한탄하는 것도 아니고, 가부장제의 부당함을 탓하는 것도 아니며, 영혜빙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또한, 자신의 신체와 영혼이 불일치하는 데서 오는 상실감이나 여성인 자신의 신체에 대한 혐오감이 표현되지도 않았다. 그의 슬픔은 자신이 남성의 신체를 갖고 태어나지 못했다는 데에서 오는데, 옥황상제의 벌과 연결해서 보자면 그의 슬픔은 곧 여성의 신체에 간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영혜빙과 마음껏 사랑을 나눌 수 없음에

45) 서신혜, 「개인의 아픔으로 읽는 <방한림전>」,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0, 한국고전여성문화회, 2010, 280쪽.

46) 장시광 교역(2006), 위의 책, 37쪽.

대한 한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방한림전>에 따르자면, 방관주와 영혜빙의 정절은 다른 한편으로는 지난 생에 남성의 몸과 영혼을 갖추었을 때 저지른 죄를 참회하고 씻는 방편이다. 다시 말해, 그가 여성의 몸으로 남성의 영혼을 갖고 살게 된 것은 자신의 선택이라기보다는 옥황상제의 명이였다. 옥황상제가 이런 명을 내리게 된 이유는 과거 남성의 몸이었을 때 지나치게 호색했기 때문이다. 남성의 몸으로서 지은 죄를 현생에서 정절이라는 이상적인 덕목을 유지하는 것으로서 씻어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방한림전>의 논리를 따르자면, 방관주가 사랑하는 사람과 동일한 여성의 몸을 갖고 있는 것은 그를 더욱 타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덕성을 유지하도록 돕는 도구의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죽음을 앞두고 거듭 사죄하는 방관주에게 황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경은 만고의 영웅이요 열녀절부로다. 세상에 짝이 없을 것이니 어찌 죄라 하리오?”<sup>47)</sup>

방관주는 남성의 정체성을 통해 만고의 영웅이라는 업적을 남겼고, 여성의 신체로는 남성과 결합하지 않음으로서 열녀절부라는 덕목을 이루었다. 저자는 천자의 입을 빌어, 방관주는 남성으로서도 여성으로서도 짝이 없을 경지에 이르렀음을 말하고 있다. 이 둘은 평생을 절개를 지키고 살며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를 맺지 못한 것으로 과거 호색의 죄값을 치렀다는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만약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지 않았거나 방관주가 여성의 삶에 만족하여 다른 남성과 결혼하여 살았다라면 옥황상제의 벌은 효력을 잃게 된다. 그들은 서로 사랑해야만 하는 사이였다. 또한 방관주가

47) 장시광 교역(2006), 위의 책, 79쪽.

신체의 성과 정체성의 성 사이에 불일치로 괴로움을 받은 것은 곧 과거 죄를 씻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여, 다시 천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편이 된다. 이성 간의 지나친 사랑이 죄로, 동성의 몸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은 이 죄를 씻는 반성과 회개의 방법인, 도리어 긍정적인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 책을 읽는 독자가 저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부가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최고의 덕목이라고 인정하게 된다면, 트랜스젠더의 삶을 받아들이게 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저지는 딜레마와도 같은 방관주의 삶을 통해 독자들을 도발하고 있다. 입신양명과 절개를 중시하는 유교사회에서, 방관주가 남성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여성으로 태어난 자가 사회진출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방한립전〉에서 던지는 의문과 해결책을 따라가자면, 우리는 적어도 함부로 방관주의 삶을 비난할 수는 없다는 답에 도달할 수 있다.

#### 4. 나가는 말

〈방한립전〉은 유사한 요소들을 갖춘 다른 여성영웅소설과는 달리, 남성의 삶 자체를 위하여 평생 남성으로 살다가 죽은 방관주가 이상적인 가정을 이룰 수 있었던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방관주는 여성의 신체를 가졌으나 남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남성으로 사회생활 및 가정생활을 꾸려간다. 방관주의 생물학적 성과 정체성의 충돌은 그저 소설에서 재미와 긴장을 더 하는 파생적인 요소가 아니라, 소설의 중점적인 갈등을 만들고 유지하며 결말로 이어지는 중점적인 역할을 한다.

유교 덕목을 중심으로 방관주의 여성성과 남성성의 충돌을 이해하자면, 이 작품이 비록 여성주의 소설로서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단순 통속소설

을 넘어서는 일부 생물학적 여성들의 삶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저자가 방관주를 남성으로 묘사하면서 동시에 유교 덕목들을 거듭 강조하는 것이 단순 가부장제 옹호나 기존 체제를 유지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통적인 유교사회에서는 너무나 충격적일 수밖에 없을 방관주의 삶에 대해 저자는 충, 효, 지기, 부부유별 등 유교 덕목들을 이용하여 그의 선택들을 정당화해나간다.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독자들에게 저자는 방관주의 삶을 쉽게 공격하지 말 것을 호소한다. 이론상으로만 따지자면 그는 이상적인 여성이자 이상적인 남성이었으며, 어떤 잘못도 한 적이 없는 인간이었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논어』

『예기』

- 곽보미, 「여성영웅소설의 장르관습과 〈방한립전〉의 여성적 시각」, 『국문학연구』 46, 국문학회, 2022, 85~110쪽.
- 김경미, 「젠더 위반에 대한 조선 사회의 새로운 상상 - 〈방한립전〉」, 『한국고전연구』 17, 한국고전연구학회, 2008, 189~216쪽.
- 김미령, 「〈방한립전〉에 나타나는 양성성과 가부장제」, 『문학과 융합』 41(5), 인문사회예술융합학회, 2019, 1368~1394쪽.
- 김승혜, 「월례 발표회: 공자관의 재조명: “부부유별”의 해석학적 역사와 현대적 전망」, 『공자학』 4, 한국공자학회, 1998, 47~81쪽.
- 김하라, 「〈방한립전〉에 나타난 지기 관계 변모의 의미」, 『관악어문연구』 27,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02, 225~245쪽.
- 박길희, 「〈방한립전〉에 나타난 동성결혼과 지기 그리고 입양에 담긴 의미와 그 위험성」, 『배달말』 61, 배달말학회, 2017, 247~274쪽.
- 서신혜, 「개인의 아픔으로 읽는 〈방한립전〉」,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0,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0, 275~300쪽.
- 오정미, 「〈방한립전〉의 남장의 성격과 의미 연구」, 『건지인문학』 12, 전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4, 133~155쪽.
- 우준호, 「부부유별의 의미에 대한 연구」, 『중국학연구』 73, 중국학연구회, 2015, 131~158쪽.
- 이상구 옮김, 『방한립전』, 파주: 문학동네, 2017, 1~198쪽.
- 이상구 옮김, 『이형경전』, 문학동네, 2025, 1~300쪽.
- 이종묵, 「조선 선비의 부부 생활과 부부유별」, 『관악어문연구』 34,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09, 349~365쪽.
- 장시광, 「〈방한립전〉에 나타난 동성결혼의 의미」, 『국문학연구』 6, 국문학회, 2001, 253~277쪽.
- 장시광 교역, 『조선시대 동성혼 이야기: 방한립전』, 파주: 한국학술정보, 2006, 1~245쪽.
- 정약용, 민족문화추진회 편역, 『다산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와 교훈』, 서울: 문장, 2006, 1~220쪽.

조홍윤, 「〈방한림전〉에 나타난 젠더 문제의 맥락 연구 - '남성 만들기'의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56, 한국고전연구학회, 2022, 163~194쪽.

LI, Chenyang, *Reshaping Confucianism: A Progressive Inquir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23, pp.1~344.

## ABSTRACT

The Chaste Lady Buried as a Man  
 - The *Banghallimjeon* Read through Confucian Virtues

Jung, Dan-Bee

*Banghallimjeon* is a novel from late Joseon period focusing on the family life of Bang Gwanju, who was assigned female at birth but lived his entire life as a man. By identifying him as transgender male, this paper essays to reevaluate the role of Confucian values depicted in the novel. As opposed to a female who was unwillingly forced into a life of a man, Gwanju actively wanted to pursue life as a man and his loyal adherence to traditional Confucian values allowed him to live the life he wanted.

Gwanju is depicted as an ideal man in his filial piety towards his parents, and loyalty towards his Emperor and country. Furthermore, a new interpretation of "Differentiation in Husband and Wife 夫婦有別" emerging during the Joseon dynasty, which centers not on the different roles between man and woman but rather the common goal of chastity and sexual loyalty towards one another, renders Gwanju the best of husbands and the best of biological women simultaneously. His virtues as a transgender man are not only officially recognized by the emperor of Ming, but is later approved by the Heavenly Emperor himself, as his transgender form and ensuing lack of lasciviousness is considered atonement enough for him to return to his male form in the afterlife.

Although *Banghallimjeon* has its limits as a feminist novel, it can be read as a conscious effort on the anonymous author's side as an active plea for acceptance of transgender life in traditional Joseon through the protagonist's loyalty to Confucian virtues.

**Key Words** Filial Piety, Loyalty, Transgender, Feminist, Chastity

논문투고일: 2025.06.30.
심사완료일: 2025.08.12.
게재확정일: 2025.08.13.